



#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

문을 여는 마음과 시신을 거두는 손길

한시·글. 운호 이진호 / 서예. 산정 윤세구



오랜만에 깊은 울림과 허전한 웃음을 남기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최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이다. 작품은 단종이라는 비운의 군주를 중심에 두고 있으나, 정작 화면을 채우는 것은 권력의 흥망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다. 왕이 폐위되고 유배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영화는 거창한 충절을 외치지 않는다. 다만 한 인간이 두려움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조용히 비춘다.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오래 남았다.

영화를 본 뒤, 서예 작품을 마주했다. 행초서로 힘 있게 펼쳐진 화면 속에 역시 계유정난(癸酉靖難)과 사육신을 떠올리게 되는 김시습의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다. 우연일까? 작품을 쓴 이는 강화도에서 서예가로 활동 중인 산정 윤세구(山汀 尹世九) 선생이다.

**開門握手問來從 (개문악수문래종)**

문을 열어 손을 잡고 어디서 왔는지 묻고,

**忙把重茵掃翠松 (망파중인소취송)**

급히 자리를 펴고 푸른 소나무 아래를 쓸어 맞이한다.

**雲散月生天宇靜 (운산월생천우정)**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떠오르니 하늘은 고요해지고,

**清談仍到五更鍾 (청담잉도오경종)**

맑은 담론은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이어진다.

처음에는 한적한 만남의 장면처럼 보였다. 그러나 김시습의 삶을 떠올리는 순간, 이 시는 다른 빛으로 다가왔다.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벼슬길을 포기하고 방랑했던 그에게 ‘문을 연다’라는 행위는 단순한 환대가 아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었으되 사람을 끊지 않겠다는 태도, 권력의 질서와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렸다. 문을 열어 손을 잡는 장면이 아니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시신 곁에 서는 장면이다. 단종이 죽임을 당한 뒤 그 시신을 수습해 장사 지낸 엄홍도. 그리고 거열형을 당한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어 노량진에 묻어주었던 김시습. 그들의 선택은 기록 속에서 짧게 언급되지만,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연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 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멸문지화를 건 선택이었다. 가족까지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나 그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 나는 쉽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그들도 처음부터 답답했을 리 없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다. 계산과 고민이 수없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 상상 끝에서 나는 한 수를 적었다. 인간 엄홍도와 김시습의 마음을 빌려 쓴 시다.


**勢盡殘軀委市塵 (세진잔구위시진)**  
권세가 다한 뒤 찢긴 몸이 저갓거리에 버려지고,  
**存亡未決苦思頻 (존망미결고사빈)**  
살고 죽음이 정해지지 않은 채 괴롭게 생각이 거듭된다.  
**今行繫命千般慮 (금행계명천반려)**  
이 길은 목숨이 매인 일하기에 수많은 염려가 따르지만,  
**敢守天心不負人 (감수천심불부인)**  
감히 하늘이 준 마음을 지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이 시에서 나는 결단보다 갈등을 먼저 두었다. ‘存亡未決’이라 적은 것은, 그들이 인간이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두려움이 있었기에 선택은 더 무겁다. 마지막 구의 ‘敢守’에는 떨림이 스며 있다. 감히 지키겠다는 말은 이미 위험을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됨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야말로 두 인물을 관통하는 핵심이라 생각했다.

산정 선생의 행초서 작품을 다시 바라본다. ‘開門’의 시작은 힘차게 열려 있다. 붓은 빠르게 나아가되 흐트러지지 않는다. 획의 기세에는 생동감이 있고, 장법은 안정되어 있다. 중반부 ‘雲散月生’에 이르면 먹빛이 한층 깊어지며 필세가 부드러워진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떠오르는 장면이 화면 위에서 자연스레 구현된다. 특히 ‘天宇靜’ 부분에서는 획의 간격이 넓어지며 여백이 살아난다. 고요는 글자의 밖에서 완성된다. 마지막 ‘五更鍾’에 이르러 붓끝은 길게 흘러가며 여운을 남긴다. 밤의 끝과 새벽의 시작이 교차하는 순간이 한 획 속에 응축되어 있다.

행초서는 자유와 절제가 공존하는 서체다.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 산만해지고, 지나치게 힘을 주면 경직된다. 윤세구 선생의 작품은 그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한다. 이는 단지 서법의 숙련을 넘어, 시의 정신을 이해한 결과라 느껴진다. 김시습의 시가 인간적 교유의 장면을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묻는다면, 그 서체 또한 열림과 고요 사이의 긴장을 품고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서 각자의 선택을 했다. 엄홍도와 김시습은 시인의 곁에 섰다. 그리고 김시습의 시는 문을 열어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을 노래했다.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외면하지 않는 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열형의 저잣거리의 없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침묵과 외면은 여전히 존재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계산, 관계를 끊어 안전을 확보하려는 선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생각은 김시습의 시를 지나 윤세구 선생의 붓끝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나의 한 수로 귀결되었다. 답은 거창하지 않다. 다만 질문은 분명하다. 끝내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문을 여는 손과 시신을 거두는 손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인간을 향해 내미는 손이다. 그 손길이 이어질 때 역사는 비로소 따뜻해진다. 나는 그 조용한 용기를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되새김 하기 위해, 다시 어설픈 붓질을 이어간다. 

**한시·글 윤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산정 윤세구(山汀 尹世九)**

- 국제서법예술연합 이사
- 강화서예가협회장
- 한국서예가협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